

나주시, 한-불 수교 140주년 준비 추진단 출범… 프랑스 교류 거점 도약

문화, 경제, 교육, 관광 등 다방면 교류 행사 준비

전라남도 나주시가 2026년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우호 증진과 교류 활성화 거점으로 도약할 계획을 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프랑스와의 문화, 경제, 교육, 관광 등 다방면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한불수교 140주년 준비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추진단은 학계, 문화·예술계, 언론·홍보 전문가 등 총 17명으로 꾸렸다.

프랑스 포경선의 비금도 표류 사건을 통해 나주와 프랑스의 첫 외교적 만남을 규명하는데 앞장선 파리 시테 대학교 엠마누엘 후 교수를 비롯해 양수경 한국불어교사협회 이사, 오영교 한불통신 대표, 박선영 프랑스 한글학교협회회장, 남영호 몽펠리에 한국문화축제 총감독 등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인물들을 대거 포함했다.

여기에 전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를 역임한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과 박철주 전라남도 국제관계대사를 고문으로 위촉해 인적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강화했다.

나주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프랑스 포경선(나르발호)의 비금도 표류 사건을 계기로 병인양요(1866년)보다 15년, 조불 우호 통상조약(1886년)에 35년 앞선 1851년 한국(조선)과 프랑스의 첫 외교적 만남을 재조명하는데 앞장서 왔다.

특히 2023년 8월 한불 외교 협력 포럼 개최와 2024년 프랑스 한불 문화 교류 행사를 진행하는 등 양국 교류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한불 수교 140주년 추진단 운



영을 통해 프랑스와의 교류를 다방면으로 확대하고 나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2026년 한-불 수교 140주년은 나주시가 국제적 위상을 높

이고 프랑스와의 다양한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추진단 운영을 통해 나주가 한국과 프랑스의 교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장흥군은 올해 여성농업인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했다.

올해 검진 대상은 장흥군에 거주하는 51~70세(1955년 1월 1일~1974년 12월 31일 출생자) 중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홀수년도 출생한 여성농업인이다.

특히 당초 정해진 자부담액(검진비의

장흥군, 신규 사업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여성 농업인 220명 대상, 진진 부담 없이 무료 진행

10%)을 군비로 전액 지원해 장흥군 220명의 대상자가 22만원 상당의 검진을 무료로 받도록 하였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지정 의료

기관인 소망나로병원(광주)에서 장흥군에 이동검진버스로 방문해 검진을 진행했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

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으로 구성되어 농작업 질환의 조기 진단과 예방 교육 등이 함께 제공되었다.

김성 장흥군수는 “앞으로도 여성농업인들이 특수한 건강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제공

완도군, 스페인서 해양치유·국제슬로시티 총회 홍보 박차

6월 19일 완도군서 국제 슬로시티 연맹 시장 총회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국제 슬로시티 회원 간 교류와 ‘2025 국제 슬로시티 연맹 시장 총회’ 완도 개최를 홍보하기 위해 스페인을 찾았다.

신우철 완도군수와 군 관계자들은 지난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스페인 테네리페에서 개최된 ‘2025 국제 슬로시티 조정 이사회’에 참석했다.

이사회에는 국제 슬로시티 연맹 33개국, 303개 도시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다.

29일 조정 이사회에 참석한 신우철 군수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완도의 자연환경, 해조류의 가치,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센터와 더불어 오는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완도군에서 개최되는 ‘2025 국제 슬로시티 연맹 시장 총회’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신 군수는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슬로시티 시장들에게 초청장을 직접 전달하며 “총회에 참석하셔서 완도에 서만 할 수 있는 해양치유와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올리비티 국제슬로시티연맹 사무총장은 “완도가 슬로시티의 역사다”면서 “올해 시장 총회에서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이자 해양치유 도시 완도에서 3W, ‘wind 바다, water 청정한 물, wood 나무와 자연’을 느낄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군은 지난 31월 11일 국제 슬로시티 연맹 33개국, 303개 도시를 대상으로 총회 등록을 위한 초청 품을 발송했으며, 현재 프랑스를 비롯하며 폴란드 르즈고프(Rzgów), 노베 미아스토 루바프스키에(Nowe Miasto Lubawskie) 등에서 등록을 마쳤다.

한편 ‘2025 국제 슬로시티 연맹 시장 총회’는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완도군에서 개최되며 ▲국제 컨퍼런스 ▲해양치유 프로그램 ▲느림의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청산도 투어 등이 진행된다.

완도/장선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구례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간담회 개최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지난 28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역량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구례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읍·면 기동대장과 대원 8명, 업무 관계자 13명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4년도 복지기동대의 주요 사업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2025년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오지마을 생활불편 제로화사업, 화재 위험가구 노후 전기·전선 교체사업 등 2025년 주요 추진 사업을 논의하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구례/한정호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은 영광군이 지킨다!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27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9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탈라지는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계절근로자 입국 후 추진절차 △고용주 준수사항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되었다. 군은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해 가고 있다. 올해는 90농가를 대상으로 30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반기별 고용주·계절근로자 교육, 연중 수시 운영실태 점검 등 안정적인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우수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진도군, 신비의바닷길 축제 대비 구제역 차단 총력

진도군은 최근 전남에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비의바닷길 축제장 내부와 주요 진입로 5개소에 소독 시설을 설치하고, 방제 차량을 운행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축제장에 방역관리 인력을 배치해 현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최근 진도군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4월로 예정됐던 점종 기간을 앞당겨 지난 14일부터 백신 점종을 시행했으며, 22일까지 관내의 모든 우제류 농가인 124 농가의 41,567두에 대한 점종을 완료했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소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진도/오재명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